



국제적인 정책개발을 지원해 왔다. 워렌은 기업으로부터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시장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정책을 정부에서 입안하도록 조언하고 있는 과학자인 것이다.

### **유엔 기후 목표와 경제적 영향에 관한 레이첼 워렌(공저)의 보고서**

워렌과 공동저자들이 2018년 작성한 '세계온도 1.5°C 제한을 통한 경제와 기후변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읽어보면, 세계적인 기후 목표와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 그녀의 가치관이 얼마나 많이 개입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결국 나는 최근의 UN의 목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워렌과 그녀의 공동 저자들이 어떻게 1.5°C 라는 목표를 정당화하려고 할지 궁금했다.

독자들은 내가 그들의 보고서의 첫 두 문장을 읽었을 때, 내가 받았던 충격에 대해 공감할 것이다.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 세계 온도를 1.5°C 로 제한하는 것의 경제적 영향은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상정할 수 없다. 다만 1.5°C 라는 목표는 경제적 손해의 관점을 벗어나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이다." 독자들은 해당 보고서가 경제적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진보진영의 전통적 방식 중 하나는 보수진영의 기후변화에 관한 주장의 논점을 흐리고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그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IPCC 보고서의 수석 저자 레이첼 워렌과 그녀의 공동 저자들이 2018년 작성한 보고서에서 기반한 유엔의 1.5°C라는 세계기후 목표 설정은, 전 세계가 목표로 삼을 기후 목표가 경제와 관련된 손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들게 만든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www.instituteforenergyresearch.org/climate-change/ipcc-lead-authors-research-uncertain-about-un-climate-goal>